



황종우 장관, 항운노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경청

- 항만근로자 격려 및 안전 당부,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8일(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항만근로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항만 현장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했다.

황 장관은 “항만은 우리 경제와 수출입 물류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며, 그 중심에는 항만근로자 여러분이 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항만 경쟁력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김상식 위원장은 “정부에서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와 항만근로자가 상호 신뢰 속에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51-773-5770)
	항만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규 (051-773-5775)